



임영석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석혜  
by Im, Yeong-seok, KIRA

약력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재학
- 전 서울시건축사협회 간사
- 전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 행복지수

## The Index Number of Happiness

2008년 상반기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한국인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3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있다.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 했을 때 행복점수를 포털사이트 '라이프디비' 에서는 평균 71.1점(남성 70.8점, 여성 71.4점)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에서는 72점(남성 71.4점, 여성 72.7점) 그리고 '문화일보' 에서는 73.4점(남성 71.5점, 여성 75.4점)으로 발표했다. 또한, 행복키워드 집계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건강·돈·가족 순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돈' 이 앞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 점수는 얼마이며 행복 키워드는 무엇인가?

### 내려놓아라

'버리는 기술' 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21세기의 패러다임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곧 버려야 산다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혹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할 때 보면 그 동안 손도 안대고 먼지만 쌓여있는 책, 복사물, 신발, 헌옷, 가구 등을 무더기로 버리게 된다. 사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그 물건의 존재 가치와 소장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주변의 많은 것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다.

이제는 버리자, 아니 내려놓자.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자.

언제인가 친한 친구로부터 '라이센스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이 작아졌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축에 관련된 많은 영역이 파생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좀 더 폭 넓은 업역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꼭 건축 설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 일 것이다.

그렇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앵겔지수부터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약간의 체면이나 화려한 과거를 잠시 내려놓고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가능성을 두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해야만 한다.

### 멋대로 살아라

여기서의 멋이란 '일정한 격식, 특정한 경향 그리고 일반적인 질서와 규칙을 깨뜨리게 될 때 혹은, 스타일을 벗어난 파격성에서 멋이 우러난다' 고 볼 수 있다.

멋은 어떤 의미에서 파괴이다.

어쩌면 우리는 여태껏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틀 속에 자신들을 제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알려야 하는 다양성의 바다에 뛰어 들어야만 한다.  
 건축사가 정치도 한번 해보자. 정부기관의 장도 되어보자.  
 그리고 대중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인도 되어 건축사의 참모습을 많이 알려보자.

곧 멋이란 벽찬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내일을 향한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멋있는 인생'이란 그 사람의 삶이 모습이나 태도, 혹은 행위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가치가 미적으로 뛰어날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능력, 그리고 남을 위한 마음가짐 또한 조화로운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

내가 믿는 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찾아 가는 것, 또한 내면의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번밖에 없는 인생 즉, 자기 나름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이다.

어쩌면 우리는 여태껏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틀 속에 자신들을 제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알려야 하는 다양성의 바다에 뛰어 들어야만 한다.

건축사가 정치도 한번 해보자. 정부기관의 장도 되어보자. 그리고 대중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인도 되어 건축사의 참모습을 많이 알려보자.

### 자신에게 투자하라

먼저 여기까지 온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자.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지난 과거까지 송두리째 도매 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날의 모습에는 분명 지난 과거의 모습이 뒷받침이 됐다. 그리고 지금 부터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 시작하자. 생각 날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너무도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이미 지쳐버린 자신에 대해 애써 터부시 해왔다. 물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와 가족을 위해 먼저 봉사를 해야만 한다. 또한 받기 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 참행복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이다.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 을 보면 40대 남성들의 밴드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의 대화중에 '인생 뭐 별거 있어, 머뭇거리지 마, 저 질러…….' 등이 나온다.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제부터라도 악기도 연주하고 그림도 그리자.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되어 공부도 하자.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러 다니자. 산과 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을 향해 여행도 다니고 멋진 스포츠도 마음껏 즐기자!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자.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할 때 비로소 세상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